

김진호 회장 AL 총회 연설, 한미동맹 재 확인

(미 재향군인회)

“한미정상 공동노력,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전기 마련할 것”



김진호 회장이 8월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 제100차 전국총회에 참석, 축하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번 미국 재향군인회 전국총회에는 영국을 비롯한 우방 5개국만이 초청됐으며 김진호 회장은 총회 참석을 통해 미 향군 주요 인사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했다.

이날 김진호 회장은 총회 연설에서 미 향군회원들은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최근의 테러와의 전쟁 등 여러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역전의 용사들이라며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더 많은 인류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한미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싸워온 사람으로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음을 몸소 지켜보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의지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노력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이러한 한미 간의 공동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문 2면>

AL 총회에 참석한 6,000여 참석자들은 김회장이 연설하는 동안 7차례에 걸쳐 열렬한 박수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진호 회장은 이어 2시간 동안 진행된 축하 리셉션에서 드니스 로우헨(Denise Rohan) 회장을 비롯한 미 향군 주요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친교시간을 가졌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는 1919년 창립되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 폴리스에 본부가 있으며 워싱턴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55개 지회와 14,000여 분회를 두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한국전, 월남전, 걸프전, 그라나다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와 제대군인 등 240만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는 1973년부터 매년 미 재향군인회(American Legion) 회장단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본회를 내방, 한반도 안보 현안과 상호 친선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 왔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 미 향군 전국 총회에 매년 대표를 참석시켜 유대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한편 김진호 회장은 미국 방문 기간 중 킬러리, 샤프 전 연합사령관과 대 설리번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등 민간 공공 외교 활동을 통해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는 활동을 전개한다.

<관련기사 2면>

아울러 미 시카고지회, 동부지회, 서부지회, 남서부지회 등 4개 향군지회를 방문하여 안보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위기 극복위해 하나로 뭉쳤다

향군, 13개 시·도 회장 초청 간담회

향군은 8월9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13개 시·도회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시·도회장은 향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군이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와 튼튼한 안보를 위해 시대상황 및 변화되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전 임직원이 위기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호 회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 시·도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군의 도약을 위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가치 소중히 여기는 계기됐다”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 후기 우수작 시상

제11회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 대장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답사 후기인 우수소감문에 대한 시상식이 8월14일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진호 회장은 우수자로 선정된 이선민(경희대 1

년), 이다운(경북전문대 2년), 박주희(동아대 2년) 양에게 대해 각각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지난 국토대장정 기간 중 무더위와 장마 등을 이겨내며 조국수호 의지를 불태웠던 대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2018년 대학생 휴전선·전적지 답사는 지난 6월 25일, 6·25전쟁 제68주년 행사가 열린 잠실체육관에서 전국 4개 대학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6박7일간 진행됐다.



김진호 회장, 국회 방문, 문화상 국회의장과 환담

김진호 회장이 8월23일 국회를 찾아 문화상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 현안과 최근 향군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100차 미 재향군인회 전국총회 연설 (American Legion)

한미동맹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없을 것

드니스 로우한 (Denise Rohan) 회장님, American Legion 회원, 그리고 내외귀빈 및 신사숙녀 여러분!

본인은 제 100차 American Legion 전국총회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000만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American Legion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최근의 테러와의 전쟁 등 여러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더 많은 인류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10살이었던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된 뒤 서울을 탈환하는 미군 탱크를 향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던 장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8년 월남전에 대위로 참전하여 미군과 함께 싸웠고, 1999년 대한민국 합참의장을 끝으로 군복무를 마칠 때까지 주한미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예비역 육군대장

을 위해 싸워온 사람으로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음을 몸소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전 당시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미국의 아들, 딸들을 참전시켜 대한민국을 지켜준 American Legion의 영웅적 역사를 한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아직까지도 냉전체제 속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하여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과 한국의 장병

은 지난 70년간 함께 싸웠고, 함께 희생했고, 함께 승리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맹국 한국이 협박받거나 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며, 이제 북한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뿐입니다”라는 국회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확실히 하였고 동시에 북한에 강력한 대응 경고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의지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노력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미국은 한 명의 전우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는 자랑스런 전통을 지키며 한국전 참전 영웅들이 귀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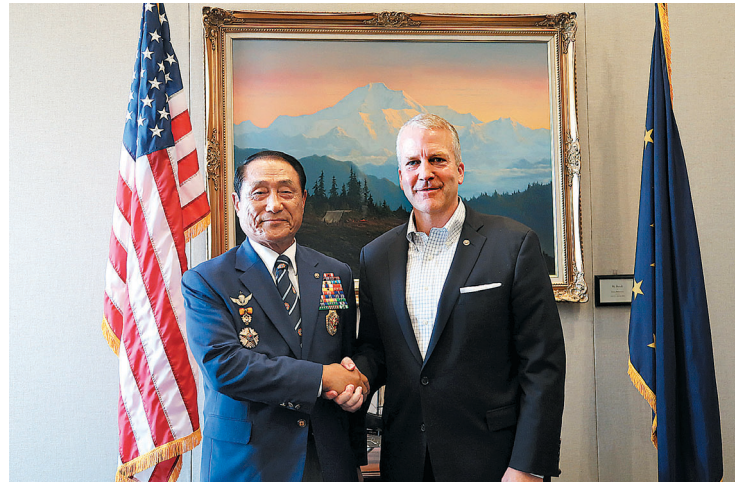
이러한 한미 간의 공동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American Legion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 번 100차 American Legion 전국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의 가호가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미합중국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회장,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 중요”

국방수권법안 입안, 설리번 의원 만나 한반도 현안 논의



김진호회장과 댄 설리번 미 상원의원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호 향군 회장은 8월 29일 댄 설리번(Dan Sullivan) 미 상원의원과 만나 국방수권법안(NDAA)을 입안하고 의회 통과를 추진해 주는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대담에서 설리번 의원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요청했다.

김회장은 “지금 남북·미북 정상회담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이 많은 우려곡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며 강력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리번 의원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미국을 비롯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지속되어야 하고 한미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한미훈련은 물론 다양한 군사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평택기지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서 세계 최고의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해 주는데 대해 미 상원의원을 대표하여 한국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의원은 공화당 소속의 상원의원으로 군사위원회 의원이며 지난해 6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증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설리번 의원은 김진호 회장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알래스카를 방문, 안보강연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안보전망대

트럼프, “대북제재, 북 비핵화 속도 촉진 위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23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측에 양보만 했다는 미국 내 회의론에 대해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제재 말고는 준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반박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중국군,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8월16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군 동향 관련 2018 연례 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에 지시할 수 있는 작전 범위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는 것

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1961년 7월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을 근거로 북한 국경을 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이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향군의 변화와 혁신 1년’ 발간

지난 1년간 향군 정상화를 위한 노력 정리

지난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김진호 회장 취임 이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1년간의 노력을 모은 ‘향군의 변화와 혁신 1년’이 출간됐다. 이 책에는 ▶사진으로 본 향군 활동상 ▶향군의 변화와 혁신 ▶언론에 비친 향군 ▶주요 연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간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임직원들의 노력이 정리되어 있다.



‘제11회 대학생 휴전선 전적지 답사 체험수기

‘우리가 간다, 젊음을 휘날리며’ 출간

젊은 건각들의 6박7일간 기록을 담은 국토대장정 체험수기 모음집인 ‘우리가 간다, 젊음을 휘날리며’가 출간됐다. 이 책에는 체험수기 소감문 우수작 10여편과 전 일정을 동행하며 취재했던 ‘코나스’ 이현오 부장의 취재 일지 등 지난 여름 호국정신으로 무장하고 휴전선 일대를 수놓았던 젊은이들의 숨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8월의 오피니언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경제공동체의 전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이 망라된 경제협력 구상을 내놓았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다. 동북아 6개국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의미한다. 올해 안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시작한 뒤 이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잇는 등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철도를 공동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국들의 동참을 주문했다.

지난 6월 러시아 하원 연설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 평화체제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업그레이드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의사를 피력하고, 향후 30년간 남북 경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대규모 경험의 전제는 지속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핵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핵 없는 평화'여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 대통령도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다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남북 경험 구상을 구체화한 데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측면이 있다. 핵을 포기하면 남북은 물론 유라시아 공동 번영의 과실을 나눠 갖게 될 것이고, 체제 안전까지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대목이 없는 건 아니다.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과 비교할 때 남북 관계 개선 속도가 빠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했다.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는 따로 갈 수 없고,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가 없으면 강력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한 올 신년사와 차이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조용히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아울러 과거를 되돌아보면 북한이 잇속만 챙긴 뒤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월16일 국민일보 사설)

北 종전선언 집착에 숨겨진 의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무기 폐기는 불확실한 데 반해 종전선언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 외무성은 7월 초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비핵화는 강과 같은 요구'라면서 거부한 채 종전선언만 요구했고,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종전선언은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 뿐이라며 합의 간청에 이어, 21일에도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서 종전선언의 채택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시에도 종전선언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미국, 중국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여당은 종전선언의 조기 추진과 이에 대해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종전선언은 바람직하고 추진돼야 하는가. 필자가 아는 한 '선언'만으로 전쟁을 종결하거나 평화를 보장한 사례는 없다. 쌍방이 전쟁을 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치밀하면서도 세부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평화의 지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는 전시에 취해진 조치를 종료시키기 위한 국내용으로 종전을 선언하지만 평화조약이 유효화되는 날짜에 맞춘다.

상식적으로 '선언'만으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왜 각 나라가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고, 모든 국가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 대비하겠는가. 1991년 12월 13일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함으로써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을 약속했고, 1991년 12월 31일에는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26일 서북도서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천안함 폭침'이나 2010년 11월23일 연평도 군부대와 민가에 150여발의 포격을 가한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이 북

한은 계속 도발을 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수소폭탄 실험마저 했다. 이를 보듯 '완전한 비핵화'이 행에 대한 확실한 보장 장치가 없는 한 어떠한 선언도 의미가 없다.

북한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도발을 자제하고,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진심으로 응하면 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을 구상하는 것은 6·25전쟁 종결을 공식화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시키고,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 대비태세의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를 아는 미국이 호응하지 않으니 종전선언이라면서 부담 없이 합의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합의 후에는 전쟁이 종결됐다고 해놓고 왜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유지하느냐고 미국을 채근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국민의 상당수도 이에 동조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남한 내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북한은 그들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6·25전쟁이 휴전상태로 65년간 지속돼 온 것은 종전선언문을 작성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 더 나은 평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현 상태의 평화라도 보장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휴전협정도 '준 평화조약'으로 볼 수 있고, 현 상태가 평화 상태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국가안보는 인간의 생명과 같이 요행을 바라거나 도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종전'이나 '평화'라는 용어에 현혹되기 이전에 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찾아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휴전협정,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DMZ)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8월24일 세계일보 칼럼 '세계와 우리' 박휘락 교수〉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뉴스 초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990년대까지는 군 입대 후 군형법의 항명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2000년 이전에는 공론화가 미미했다. 그러다 2001년 이후 군입대 거부 후 일반 재판에 의해 입영 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공론화되었고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전원합의체에서 합헌을 선고했으며 이어 2004년 8월26일과 2011년 11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2007년 9월 국방부에서 대체 복무제를 추진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2008년 12월 대체 복무제 도입을 백지화한 바 있다. 이때 향군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며, 반대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2017년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권고 및 국회의장에게 '병역법 개정안' 보완 입법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대체 복무제 도입 여론이 2005년 10.2%에서 2016년 40.1%로 도입 찬성 비율이 높아져 헌법 19조 양심적

자유와 대체 복무제 여론이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2018년 6월28일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이며 다른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이다.

먼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해 재판관들은 6 : 3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은 제5조에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을 비롯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병역의 종류는 정하면서 대체복무 조항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도입, 시기상조

제가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헌재가 사회적 혼란 우려로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합헌(4 위헌(4), 각하(1))로 합헌 결정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하는 자 특히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다.

향군은 안보활동 기초관리 틀 속에서 양

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제 도입은 남북관계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향군은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제재수단으로 분단 상황 하에 종교적(양심) 병역거부자의 심사 곤란 등을 이유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향군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체복무 제도 도입의 전제로 첫째 현역 복무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 제정 시 구체화해야 하며, 둘째 병역거부의 사유가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셋째 대체복무제의 기간, 근무형태 등 근무의 강도가 현역복무보다 가볍지 않도록 법제화해야 하며, 넷째 병역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하고, 다섯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사회적 합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 등을 법 제정 시 명문화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호국안보국)

한-네델란드 참전용사 후손 우의 다져

네델란드 현지서 캠프 열어 ... 세대·국경 초월

유엔참전국과 지속적인 교류 발전을 위한 첫 한-네델란드 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가 8월23일부터 29일까지 네델란드 현지에서 열렸다.

국내 대학생 16명과 네델란드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16명 등 총 3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이준열사 기념관, 참전부대 등 주요시설 방문과 참전용사 후손으로 국경을 넘는 우정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양국 학생들은 네델란드 참전용사 감사 오찬을 준비하고 감사편지와 학생공연 등을 직접 진행하면서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다.

특히 8월26일 암스테르담 광장에서 한-네델란드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참전용사 감사 번개 공



연”을 통해 네델란드 국민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을 초청해 국내 대학생과 평화캠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전국 현지에서 캠프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첫 방문지를 네델란드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참전용사 본인에서 후손으로 세대교체에 성공한 네델란드 참전협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후 참전국별 후손 우호 협력의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보스턴 한국전 참전비 방문, 헌화·참배

매사추세츠 주 미군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보스턴을 찾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8월11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 국립역사공원 인근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를 방문, 헌화·참배했다. 기념비에는 매사추세츠 한국전 참전자들의 이름과 주요 전투 각인이 새겨져 있다.



국방부, 제대군인 취업위해 팔 걸었다

개인별 취업상담, 공공부분 특별채용 등 추진

국방부는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전역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를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한다. 취업지원 대상을 장기복무 군인 위주에서 중·단기복무 장병까지 확대한다.

먼저 올해 26개 사단·여단급 부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상담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1:1상담교육’은 장병을 대상으로 민간전문상담관이 개인별 취업전문상담을 실시, 기업과 구직희망 장병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또한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중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기간을 1~3개월

에서 3~7개월로 확대하여 전직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국방 부문에 도입하여 군에서 복무한 경력이 사회의 동종 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한다.

특히 정부 일자리 확대 로드맵에 의거 소방, 경찰 등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는 곳에 제대군인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 및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채용, 서류전형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다.

이에 더해 제대군인의 일자

리 창출을 위해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취업박람회, 구인 기업과의 만남의 날 행사, 취·창업설명회, 유망업체 현장탐방 등 다양한 취업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상병 및 병장에게도 구직 목적의 청원휴가를 2일 보장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환경등을 개선하여 자기개발 및 온라인 수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대군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화 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노인공경, ‘효라벨’ 운동 전개

육군본부 2경비단이 7월30일 지역 어르신을 위해 꾸준히 봉사를 펼쳐 노인 의료복지시설 계룡 호 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경비단은 지난해 12월 양은찬 경비단장 취임 이래 ‘감사 나눔 운동’의 하나로 ‘효와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의 ‘효라벨’ 운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지역 어르신을 공경하며 장병들의 인성을 기

르기 위한 방법으로 ‘계룡 호 센터’와 인연을 맺고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주말을 활용해 꾸준한 봉사를 실천해 왔다.

2경비단 정찬혁 병장은 “주말에 개인정비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돼드리고자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했다”며 “군 복무를 통해 배운 ‘효라벨’의 가치를 전역 후에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에 영어회화 강습

해군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이하 기행교)가 7월30일부터 8월16일까지 기행교 영어교관실에서 ‘하계 대민 영어회화 교실’을 열었다.

창원시민과 군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열린 영어교실은 기행교 영어 교관과 원어민 강사들이 지난 2000년부터 18년 동안 이어온 재능 나눔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은 연령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구성됐으며 오

전반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반은 대학생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첫 주 차에 이뤄지는 진단평가를 통해 영어 실력을 평가받은 뒤 수준에 따라 초·중·고급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았으며 외부활동 및 게임 등을 통한 실용영어 숙달과 다양한 주제 토의 및 역할극 등을 통한 영어구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연꽃축제 사진촬영 이벤트

공군18전투비행단(18전비)은 7월28일 부대 인근 풍호마을에서 열린 연꽃축제에서 무료 기념사진 촬영 대민지원을 했다. 공군장병들은 연꽃축제 현장에 포토 존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그 자리에서 인화해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강원도 강릉시 하시동리 풍호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7월 말 연꽃을 주제로 ‘연꽃축제’를 열고 있다. 18전비

는 지역과 상생하는 비행단상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꽃축제에 사진촬영을 지원하고 있다.

18전비 정훈공보실 이태화 병장은 “날씨가 많이 덥지만 사진을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니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민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과 함께하는 비행단을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해병대2사단 정비대대 장병들이 부대 인근 마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장병들은 최근 통진읍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복지팀, 주민자치위원회,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해병대전우회 등과 함께 김포시 통진읍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과 홀로 어렵

게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이희건 하사는 “봉사활동을 마친 뒤 집 주인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며 “잠시 부대를 벗어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해병대로서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의 첨병 / 경기도 향군

어려운 여건 속에 재정 자립 추진, 안정적 회 운영 모범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확보 회관 리모델링 통해 임대 수익 늘어

경기도 향군이 2015년 2월 향신철 회장 부임 이후 도회 부채의 조기상환과 안정적인 회무운영을 위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여 부채의 일부를 조기 상환하고 회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 모범적인 회무 운영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향군은 그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 배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도 향군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수익 강화했다. 나아가 경기도로부터 회 운영비 지원을 받아내는 등 안정적인 회무 운영과 자립도 향상을 위해 전 회무 역량을 집중시켰다.

회관 리모델링으로 임대수익 늘어

먼저 경기도 향군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사무처장실 등 사무실 통폐합하고 회관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중·소회 의실을 임대했다.

이를 위해 황신철 회장을 비롯

하여 임직원들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과 도의회 의장 등을 수 차례 만나 리모델링 필요성을 설득했으며 그 결과 2년(15년~16년)에 걸쳐 리모델링 소요 비용 약 1억5천여 만원을 지원받아 연간 4천3백여만원의 임대수익 확보하여 2억4천5백여만원의 부채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구조조정을 통한 운영비 절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개 시·군회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행정 관리부장이 총무과장을 겸직하고 총무과장을 예하 시·군회 사무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기존 사무처 직원들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새롭게 임무 분장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했다. 아울러 도지사과 도의회 의장에게 회 운영을 위한 차량 필요성을 제기하여 2년여 만에 운영차량을 지원 받음으로써 경기



경기도 향군회관

도 향군은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향군 위상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도로부터 운영 및 사업예산 획득

특히 지금까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는 받은 적이 없었던 경기도 향군이 황신철 회장의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운영비 3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업예산도 2천5백여만원도 지원받는 등 향군의 위상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황 회장이 그간 수차례 도의회 의장 면담 등을 통해 운영비 지급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회 운영의 자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낸 경기도 향군은 나아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경영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리모델링후 정비된 경기도 향군사무실

향군-재해구호협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은평구 향군, 생수·침구 등 생필품 전달... 봉사 활동

향군과 전국재해구호협회는 8월29일 지난 26일부터 3일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300mm 가까운 호우로 침수된 서울 은평구 일대 침수 다세대 주택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 재해구호 활동을 펼쳤다.

호우로 이 지역에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접수한 향군은 은평구재향군인회 회원 10여명과 재해구호협회 5명으로 구호단을 편성해 응급구호 활동을

펼쳐 이재민들에게 당장 생활에 필요한 생수, 간이침대, 식품류 등 총 6500여점의 구호품을 전달하고 세탁차를 이용한 세탁봉사와 서문교회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구호활동을 펼쳤다.

향군과 재해구호협회는 지난 7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재난·재해 발생시 호국안보활동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재민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향군회원과 전국재해구호협회회원들

35사단 부안대대 해안소초 위문

전북 안보단체협의회

전라북도안보단체협의회(회장 주대진·전북 향군회장)단체장 12명이 8월28일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해안 경계에 전념하

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전북 부안 격포에 위치한 35사단 부안대대 해안 소초를 방문하여 위문금과 위문품(운동기구류)을 전달했다.

경기 향군, 추가 안보확산 교육

임직원 공감대 형성, 교육성과 'GOOD' ... 시군 요청 이어져

지난 7월5일부터 24일까지 '힘찬한 여정 한반도 비핵화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2차 확산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경기도 향군(회장 황신철)이 시·군회의 요청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8월8일 예비군지휘관들이 동회장 겸직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인 안양시 향군의 초청으로 진행된 교육에는 51사단 167연대 3세대 장병들과 예비군 지휘관 등 200여명을 참여하여 큰 호응

을 얻었으며 여타 시·군회에서도 교육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향군은 지난 7월 북부, 동부, 서남부 등 3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된 2차 확산교육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향군 임직원으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평을 들었다며 교육의 성과를 설명했다. 경기도 향군은 9월말까지 시군회에서 교육요청을 받아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9월5일 화성·오산시회, 9월18일 성남시회에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향군 여성회, 사랑의 빨간밥차 무료급식 봉사

향군여성회(회장 추순삼)는 8월20일 인천시 부평역 광장에서 인천 부평구 여성회와 함께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향군 여성회는 지역 저소득층 생계 곤란 어르신들의 식사 급식을 돕고 설거지 등을 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미 동부 향군, '유엔군 참전 보은의 날' 행사 정전 65주년 맞아 "유엔 참전용사, 영웅으로 추대"



미 동부 향군(회장 김경구)이 7월28일 한국전 정전 65주년을 맞아 6·25 전쟁에 참전한 한·미 양국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표했다.

정전 기념일 하루 뒤인 이날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김동기 총영사, 표세우 대사관 국방무관과 집피셔 미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사무총장, 리처드 딘 한국전참전기념공원재단 부이사장과 손경준 위싱턴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군 참전 보은의 날' 행사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경구 회장은

"6.25 사변이 발발한 지 68주년,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영웅으로 추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이 보은의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8월1일 귀국하는 이강욱 국방무관보(해병 무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지난 3년간 무관보로서의 소임을 잘 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리처드 딘 한국전기념공원재단 부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 추모의 벽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향군전용 묘역' 조성

영산추모원 '휴'와 업무협약, 회원 자긍심 고취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분당 영산추모원 '휴'와 향군전용묘역 제공 및 제반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휴'로부터 수목장지, 봉안담 등의 향군전용 묘역을 제공받아 향군회원 및 상조회 회원들에게 특별한 할인혜택으로 제공한다.

향군 상조회는 협약 체결을 통해 봉안담 3,000기, 수목장지 890위를 '휴'측으로부터 제공받아 향군전용묘역을 지정했으며 '휴'는 향군전용묘역을 관리시스템에 따라 이를 관리, 운영하게 된다. 특히 향군전용묘역임을 알리는 표시석, 안내 구조물, 인식표 등을 설치해 향군전용묘역에 특별함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휴'는 향군전용묘역 지정 외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



지난 6월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영산추모원 '휴'

시 안치시설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안장 심사기간 동안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대상자는 국가보훈처 장례서비스 제공대상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이번 분당 영산추모원과의 협약을 통해 향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향군전용묘역 지정으로 회원들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향군은 9월12일 분당추모공원 '휴'에서 재향군인회 전용묘역 조성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 '크리스천 사랑' 출시

CBS가족·크리스천 전용 상조 상품

재향군인회상조회가 CBS가족을 위한 크리스천 전용상품 '크리스천 사랑'을 출시했다.

'크리스천 사랑' 상조상품은 '크리스천 사랑 336', '크리스천 사랑 450', '크리스천 사랑 52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례 관련 행정안내, 부고알림, 운구차량, 장례용품 및 인력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조 상품 가입으로 상조(장례) 서비스 또는

풀 옵션 크루즈 여행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재향군인회 상조회 관계자는 "지난해 CBS와 건전 상조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CBS가족과 크리스천을 위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준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원비 전액 금융권 예탁을 기반으로 CBS가족에게 공익성, 안정성, 신뢰성, 전문성 있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CBS전용 상조상품은 CBS상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을 통해 기독교 의례, 현대식 의례, 장례절차 및 순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국가보훈처 생계교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사업, 무료 병역이행 멘토링 서비스,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유골봉환 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참전용사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 표해

캐나다 동부·미 중서부 향군, 제65주년 정전 기념식 참석

7월27일 Ray Lawson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정전기념식에 캐나다 동부지회(회장 송승박) 회원들이 참석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주도한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캐나다 연방상원의원을 비롯하여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기념식에서 송승박 회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자리에 대신 목숨을 바친 캐나다 6.25 참전용사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2만6천791명을 파병했으며, 그 중 516명 전사, 1천42명이 부상당했다.

한편 미 중서부지회(지회장 김주인)도 이날 시카고 케네디파크에서 열린 제65주년 정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주인 회장은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미 중서부지회는 그간 625전쟁에 참전한 미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강조했다.



향군 복지물 신규 가입 이벤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합사업 본부가 운영하는 재향군인회 복지물이 신규 가입 향군 회원 선착순 1,000명에게 복지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5,000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신규 회원이 대상이다. 이벤트 당첨자는 10월 초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당첨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당첨자 1,000명에게는 적립금이 일괄 지급된다.

제공되는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11월30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 전 제품 구매 시 상품 금액 대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복지물 관계자는 "새롭게 가

입하는 향군 회원들에게 구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향군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혜택

의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향군인회 복지물 회원가입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재향군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50% 공통구매
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원하신 분을만, 일요일까지 주문 가능합니다.
NEXT 공통구매는? 9월 3일!

서울 성북구 향군, 정전 65주년 기념 학술회의

성북문화원과 '정전, 종전 그리고 평화로' 를 주제로 개최

서울 성북구 향군(회장 박상찬)이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과 공동으로 7월27일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정전에서 종전으로, 그리고 평화로' 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김보영 선임연구원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 를 주제로, 성북문화원 백이준 성북학연구팀장이 '한국전쟁 기간 최익환, 박진

목의 정전협상' 을 주제로, 또 성신여대 문화내러티브전공 김준현 교수가 '한국전쟁과 1950년대 문학' 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김선호 HK연구교수, 역사문제연구소 한봉석 연구원,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정영진 초빙교수가 이들 주제를 중심으로 열린 토론회는 별였다.

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는 미아리고개 등

이 소재하는 성북구는 정전, 종전, 그리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고 심우장(만해 한용운 고택) 등 애국지사의 발자취를 둘러 볼 수 있는 사적들이 산재해 있다.

한편 이날 성북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그룹 슈펠레이 '비목', '그리운 금강산' 등 전쟁과 평화,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노래 공연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전주시 향군 청년단, 임실호국원 정화활동

안보활동에 앞장서고 지역에 봉사하는 청년단으로 거듭날 것

전주시 향군 청년단(단장 강호진)이 8월25일 국립 임실호국원을 방문,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소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강호진 청년단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가 잠든 호국의 성지인 국립임실호국원에서의 봉사활동은 향군 청년단의 활동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전주시 향군 청년단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창수 전주시 향군회장은 "청년은 국가안보의 보배 같은 존재라며 국가 안보활동에 앞장서고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청년단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전주시 향군 청년단은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6월11일 출범했다.



경기 고양시 향군, 제7회 호국보훈문화제 개최

경기도 고양시 향군이 8월25일 일산문화공원에서 '제7회 고양시 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군 탱크, 장갑차 등 군 장비 전시, ▲서바이벌 장비 체험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진 및 유품전시회, ▲독도사진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위로연 등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

념식과 함께특공무술, 태권도 시범, 군악연주회, 가수 인순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고양시 향군은 국가 유공자의 높은 뜻과 명예를 기리고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며 자유와 평화수호를 위한 안보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매년 '호국보훈문화제' 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 서구 향군,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참배

이전 제막식에 앞서 주변정화활동 펼쳐 '보은'

인천 서구 향군(회장 임병철)은 7월25일 경명공원에서 열린 콜롬비아군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콜롬비아 참전비는 원래 서구 가정동 경인고속도로 옆에 위치했으나 루원 시티 개발과 관리부실로 인하여 자칫 흉물로 변할 우려가 있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인천 서구 향군을 비롯한 보훈단

체장들이 서구청에 건의하여 경명공원으로 이전하게 됐다.

한편 인천 중구향군 회원들은 제막식에 앞서 콜롬비아 참전비를 찾아 참배하고 경명공원 일대를 비롯한 주변도로에서 정화 활동을 펼쳐 호국정신 함양과 함께 위기 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유엔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468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 (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스마트치과의원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 053-653-9999 : 비급여 15~30%
- 시카고치과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178) 032-549-2275 : 비급여 20%
- 인천훈병원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71-2) 032-422-7582 : 비급여 10%

식당/음료

- 아라마루펜션카페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공세항길 287) 054-781-1313 : 10%
- 안일쌈밥비빔 (대구시 동구 율하동로 23길 55) 053-964-1006 : 15%

기타

- 내당농산 (대구시 달서구 명덕로 13) 053-626-5678 : 5%
- 대경마트 (대구시 동구 아양로 34길 20) 053-955-5063 : 1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굿모닝백이안과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4) 051-862-0102 : 20%
- 나은병원 (인천시 서구 원적로 23) 032-584-4119 : 비급여 20~30%
- 누네안과병원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661-1175 : 10~2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바로병원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458) 032-722-8585 : 비급여 20%
- 부산고려병원 (부산시 남구 수영로 238) 051-930-3000 : 비급여 10~2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좋은선린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054-245-5000 : 10~20%
- 참사랑노인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창장로 1910) 043-298-9100 : 20~50%
- WS치과병원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47) 051-702-7588 : 비급여 20~40%

숙박·리조트

- 렉씨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988 : 40%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쇠소깍해양제타운 (제주도 서귀포시 쇠소깍로 151-8) 064-733-0252 : 40%

기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동 1085) 042-488-0424 : 10%
- 디자인메이드 (경남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223-2) 055-835-3132 : 10%
- 매니아맞춤양복 (대구시 남구 이천로 29) 053-472-3366 : 10%
- 사르망안경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12) 033-342-0108 : 30%
- 세종정혜식당 (세종시 연서면 함박로 300) 044-866-4444 : 10%
- 안양정혜식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4번길) 031-456-5555 : 20%
- 양양자동차공업사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27) 033-671-6880 : 10%
- 제주오렌지렌트카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171-1) 064-713-0334 : 30~80%
- 조은광고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52) 055-884-1800 : 20%
- (주)북의정부자자동차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59-19) 031-878-1000 : 10%
- 주연테크컴퓨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마북산로 27번길 1) 055-262-2494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산로 234) 02-844-1177 : 30%
- 춘천명물닭갈비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807) 070-8837-2069 : 5%
- 타이어뱅크신평점 (경북 구미시 원평동 560-5) 054-461-1777 : 13~20%

각급회 소식 (7월21일 ~ 8월20일)

서울시 향군

동작구회 : 8월1일 이진택 회장이 대한문 광장 마린은 순국 해병대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순직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려.

부산시 향군

중·동구회 : 매주 목요일 봉생 중구노인 복지센터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사업'과 '세탁 봉사' 참여.



진구회 : 여성회는 7월26일 부산어린이 대공원 입구에서 폭염 속에서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 봉사.

기장군회 : 7월27일 관내 기장병원과 향군 가맹점 협약식.



북·사상구회 : 7월28일 임직원 및 여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호국공원 전적지 순례.

동래·연제구회 : 6·25참전용사 및 구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회원 가입홍보, 및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교육.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8월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경축식과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거행된 달구벌대종 타종식 행사에 참석. 8월13일 대구광역시 관보훈 및 안보단체장 간담회 참석.

서구회 : 여성회는 8월6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남구 대명3동회 : 7월27일 대명3동 자율방범대와 함께 단합행사를 갖고 지역 봉사활동 공동추진 합의.

수성구회 : 8월3일 지역 노인 600여 명을 초청한 위안잔치에서 삼계탕 조리 및 배식 봉사활동.



동구회 : 7월21일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회원단합 행사. 8월8일 향군회관에서 배기철 동구청장,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업무 지원 요청. 8월16일 여성초식당에서 역대 여성회장 초청 간담회.

달성군회 : 8월14일 비슬산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자연정화 활동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7월25일 인천시 관내 차도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8월15일 김형년 회장이 인천수목공원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 참석.



남동구회 : 8월2일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학생과 교사 80명을 초청, 제3땅굴 및 도라산전망대, 도라산역 등 분단의 안보현장을 견학하며 올바른 안보관 및 국가관 함양. 7월29일 동회장단과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철원노동당사를 견학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제감.

계양구회 : 7월22일 임직원 및 회원, 여성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6.25격전지였던 백마고지를 돌아보며 안보의 중요성 인식. 7월24일 계산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사 72명을 초청, 제3땅굴 등 과주지역 안보전적지를 찾아, 학생들의 안보관 확립.

중구회 : 8월3일 다문화가족들을 초청하여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일대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강화군회 : 7월21일 경기도 포천 독수리유격대 전적비 일대 안보현장 견학 실시.

부평구회 : 7월16일부터 30일까지 부평역 광장에서 지역 어르신에게 무료점심을 대접하는 '사랑의 빨간밥차' 행사 음식준비 및 배식봉사

경기도 향군



안양시회 : 8월8일 육군51사단 모락산대 안보교육관에서 '나라사랑 안보연수회'를 개최하고 이상노 도회 안보부장을 초청, '힘난한 여정 한반도 비핵화'를 주제로 안보강연회를 가져.

용인시회 : 8월16일 임직원 및 여성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복달임 행사를 갖고 회원 친목 도모.

수원시회 : 8월2일 향군회관에서 육·해·공군 안보 단체장 및 시청 관계관을 초청하여 향군 현안 업무에 대한 의견 교환.



부천시회 : 8월16일 부천시 시각장애인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시각장애인 250명을 초청하여 위로연 행사.

양주시회 : 8월1일 신임 권중진 자유총연맹 양주시회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업무 제휴 논의.

강원도 향군



화천군회 : 8월1일 월남참전자회, 자유총연맹과 화천쪽배추제장에서 자원봉사활동 전개.

춘천시 서면회 :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서면 독립투사 이준용·한용석 선생 기념비 참배.



철원군회 : 8월20일 철원군청을 찾아 이현중 군수에게 지역 인재 육성에 사용해 달라며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

충청북도 향군



청주시회 : 8월9일 관내 한우협회 직영점 대형 정육식당과 향군 우대가맹점 협약. 청년단은 8월2일 분평동 원마루 인근 농로 및 인도 야간청소 봉사활동 후 풋살 대회. 8월17일 청주시 교육청을 방문, 안보교육비 지

원 협조 요청.

음성군회 : 여성회는 7월26일 혜성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봉사.

옥천군회 : 7월25일 지역 2201부대 지휘관들과 군청 및 주민센터 안보 관계관들을 초청하여 안보 간담회.

영동군회 : 7월25일 양태복 도회 안보부장을 초청하여 향군 임직원 및 여성회 회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제천시회 : 7월24일 양태복 도회 안보부장을 초청하여 향군 임직원 및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대전·충남 향군



아산시회 : 7월21일 관내 안보공원 6.25 참전 기념탑을 참배한 후 '나라사랑 현충시설물 그린운동 발대식'을 가져.

천안시회 : 8월2일 향군회관에서 전종석 안보강사를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강연.

보령시회 : 여성회는 7월24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과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성범죄 근절 캠페인.

태안군회 : 8월17일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와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회의실에서 안보활동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전라북도 향군



부안군회 : 여성회는 7월27일 부안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양성평등 실현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 수상.

임실군회 : 여성회는 8월3일 임실군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된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양성평등 실현 공적을 인정받아 군수표창.

완주군회 : 여성회와 향군임원들이 8월16일 은혜의 동산과 선덕보육원을 찾아 봉사활동.



김제시회 : 8월13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가 각 가정과 거리에 걸리기를 소망하며 나라 사랑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 전개.

<8면에 이어>

고창군회 : 8월15일 산정식당에서 여성 회원 친목을 다지는 단합행사 개최.

정읍시회 : 8월20일 향군회관에서 전종석 안보교수를 초빙하여 임직원, 회원 등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광주·전남 향군

광주 북구회 : 7월28일 담양 가마골에서 임직원 및 여성회가 참여한 가운데 회원친목 행사.

여수시회 : 8월1일 자산공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

담양군회 : 7월23일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하여 향군 임직원 및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들꽃 그리고 향기'에서 안보강좌.



영암군회 : 8월2일 김종환 회장이 육군 제8539부대 왕인대대에서 명예 대대장으로 위촉되어 위촉장.

화순군회 : 8월6일 능주향교 예절교육관에서 임직원 및 여성회원들을 대상으로 예절 및 안보교육 실시.



보성군회 : 8월2일 임직원 여성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흥군 소록도, 나로우주과학관, 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임원연수회 실시.

무안군회 : 8월11일 무안연꽃 축제장에서 자원봉사활동.

경상북도 향군

영천시회 : 7월27일 영천시청을 방문, 최기문 영천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활동을 소개하고 지원 요청. 7월31일 이잠순 여성회 부회장이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영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영천시장 표창 수상. 8월16일부터 18일까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방문, 천안함 위령탑과 현충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엄중한 안보 현실 체득.

안동시회 : 여성회는 7월27일 관내 요셉의집을 찾아 급식 봉사활동.



영주시회 : 7월24일 이종호 영주시회의장과 김병기 부의장의 초청으로 시의회를 방문, 향군활동 지원 요청 8월7일 영광고등학교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8월13일 유현주 강사를 초청, 영광고등학교 강당에서 '경북의혼 나라사랑 학생통일 안보교육' 실시.

경산시회 : 7월26일 인근 식당에서 임직원 및 여성회원을 초청하여 단합행사 개최.

영덕군회 : 8월16일 임직원 및 여성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낙평리에서 회원 단합행사.



문경시회 : 여성회는 8월16일 문경새재 일대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

포항시회 : 8월11일 전물학도 총훈탑에

서 거행된 '제62회 전물학도의용군 추념식' 참석.

상주시회 : 8월20일 읍·면·동회 회장 단과 함께 UN평화공원,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체험.

경남·울산 향군

하동군회 : 박연하 회장이 7월25일 개면탐리 학도병 전적지에서 거행된 제68주기 화개전투 전물학도병 추모제에 참석.

진주시회 : 7월21일 산청군 지리산 계곡호텔 일원에서 여성회원과 임원진, 읍면동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연수회.

합천군회 : 8월2일 합천군청을 방문, 문준희 합천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향군 사업 지원 및 협조 요청.



고성군회 : 7월24일 경남항공고 학생과 선생님들을 초한 가운데 사천 항공박물관, 우주과학관,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등을 둘러보는 학생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8월2일, 3일 향군 임직원 및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독립기념관, 용산전쟁기념관, 동작동 현충원, 관문점, 임진각, 도라전망대, 3땅굴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남해군회 : 7월24일 향군회관에서 안보단체협의회 후 남해군청을 방문, 장충남 남해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향군활동 지원 요청.

남해군 상주면회 : 8월14일 은모래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야간 입수자 예방활동.

거제시 옥포동회 : 7월27일 6:25 참전용사 및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냉면과 쌀국수 전달.

거제시 아주동회 : 8월5일 광복73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2018 거제시 통일 대장정 행사를 맞아 3.1기념탑 정화작업.

창녕군회 : 8월8일 분계천 계곡에서 읍면 회장단 및 여성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회 운영방안 토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회 : 8월10일 가음정 시장 인근 주택지와 아파트 단지 부근 생활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에서 환경순찰과 인도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환경정비 활동.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8월1일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 일대에서 등산로 제초작업과 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 전개. 2일부터 14일까지 6·25전쟁 참전 유공자회 회원 5가구를 방문해 방수와 도배, 장관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서귀포시회 : 여성회는 8월8일 서귀포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봉사 활동.

서귀포시 동홍동회 : 8월19일 마린하우스에서 임직원, 회원 및 여성회가 참여한 가운데 회원 친목단합행사.

반만년 우리 민족사 가운데 잇을 수도 없고 잇어서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대참극이었던 사건은 6·25전쟁이다. 당시 밀고 밀리던 그때의 최일선 격전장은 155마일 휴전선으로 총성과 포성이 진동하던 곳이 었다. 우리는 이처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을 접경지역이라 한다.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부터 민통선(민간인통제선)까지의 통제 보호구역, 민통선 남방지역인 제한 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세계 유일의 분단 도로로서 이념과 대립의 상징적 지역으로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이 휴전선과 접하고 있으며 휴전선 155마일(248km)중 철원~고성 구간은 전체 58%인 90마일(145km)이며 또한 우리나라 해안 군 경계절책(295km) 중 약 절반인 145.7km를 강원도에 존치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 회원의 목소리

평화지역 선포와 안보활동 방향

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은 3개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5월 1일부터 육상의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역으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5월 1일 접경지역 5개군 철책선 주변 마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를 갖고 긴장과 분쟁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그동안 폐쇄적, 방어적 패배적인 접경지역 명칭을 화합과 번영, 평화와 희망을 지향하는 평화지역으로 선포했다. 평화와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고 생태와 역사, 문화적 요소를 성

장 동력으로 삼아 통일을 대비한 준비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 즉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더라도 전쟁을 잊고 있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듯이 통일을 대비한 준비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려면 우리는 안보를 잊어서는 안된다.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1952년 2월 준군사조직의 안보단체로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국가 안보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창설됐다. 향군은 시대 상황과 변화되는 안보 상황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오늘날 안보 상황의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미래의 꿈나무, 미래의 국가 안보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 고취 및 통일 공감대 형성으로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함양시켜주고 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향군이 수행해야 할 안보의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 평화지역 선포와 함께 강원 향군은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향군이 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을 다할 것이다.



권동용 강원도재향군인회장

본고는 8월24일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되었던 글입니다 <편집자 주>

친목단체 활동

진동리 지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호연)는 8월11일 진동리 전적비에서 진동리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를, 8월12일 원문고개 전적비에서 통영 상륙작전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를 개최했다.

친선바둑대회



단기 간부사관총동문회(회장 정성진)는 7월28일(토) 종로3가 한국기원에서 제1회 총동문회장배 친선바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21회 고엽제의 날 행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회장 황규승)는 제21회 고엽제의 날을 맞아 7월18일 장충체육관에서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운영위원회의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 김정규)는 8월17일 향군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도 하반기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순)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향여군연합회 : 9월4일 롯데 잠실점 조가에서 회장단 회의
- ▶갑종장교전우회 : 9월4일 회 사무실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
- ▶학도의용군회 : 9월5일 흑석동 효사정공원에서 김춘식 외 48위 학도의용군 추모식
- ▶수송동우회 : 9월11일 육군회관에서 제67주년 수송병과 창설 기념행사
- ▶대령연합회 : 9월11일, 12일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
- ▶정보동우회 : 9월12일 프레스센터 일품헌에서 임원단 체장 간담회
- ▶포병전우회 : 9월13일 독섬유원지에서 자연보호활동, 9월20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역사탐방
- ▶영천대첩참전전우회 : 9월13일 영천호국원에서 제68주년 영천대첩 기념 경축회
- ▶KL08240부대전우회총연합회 : 9월14일 인천 팔미도 등대 앞에서 제68주년 인천상륙작전 팔미도 등대 탈환 점등 기념행사.
- ▶6·25웅진전투전사자기념사업회 : 9월14일 2사단 3821부대내에서 6·25웅진전투전사자 합동 위령제.
- ▶해군동지회중앙회 : 9월15일 인천 월미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 재현 행사, 9월22일 은평구 평화공원에서 해밀턴 쇼 대위 추모식.
- ▶광복군동지회 : 9월17일 백범기념관에서 광복군 창설 78주년 기념행사.
- ▶백골전우회 : 9월18일 기계면 성계리 광장에서 기계안강전투 전승 기념행사.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9월20일 인천 수봉공원에서 제68주년 재일학도의용군 6?25 참전 기념식.
- ▶태극단선양회 : 9월28일 태극단 합동묘역에서 제68주년 태극단 순국단원 합동 추모제.
- ▶해병대전우회 : 9월29일 11시 104고지 전적비에서 104고지 전투 전승기념 및 추모제, 14시 서울광장에서 제68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사장교 만남의 날 행사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오신환)는 7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 홀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자문위원 간담회



갑종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8월24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지부

고엽제피해자 위로행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베트남지부(지부장 서철재)가 8월8일 호치민 띠엔녝호텔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베트남지부 회원 11명과 베트남전 때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전 육토

장군을 비롯한 베트남 고엽제 회원 200여명을 초청 위로 행사를 가졌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베트남지부는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 호치민 학몽 지역에 병원을 설립해 치료 및 재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든든한 국가대표 상조회

상조업계 최초! 무료 병무상담 멘토링 서비스

군복무 관련상담일체 (고충/진로상담)
02-2218-7015

- ✓ 현역 군인, 입대를 앞둔 청소년 및 자녀, 가족, 입대를 준비하는 여성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 35년 군 인사 관련 전문 상담관을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 ✓ 방문 상담, 유선 상담, 이메일 상담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등 진행!



기억하겠습니다!

특별 서비스 향군전용묘역

향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추모하기 위한 분당추모공원 '휴' 향군전용묘역 조성

- ✓ 분당영산추모원 '휴'와의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 체결!
- ✓ 수목장지, 봉안담, 국가유공자 임시 안치 시설 등 특별한 향군전용묘역 제공!
-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재향군인회상조회만의 따뜻한 보훈으로!

제주도 향군, 향군 장학금 100만원 기탁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사진)이 8월8일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을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달수 회장은 “이 장학금이 참전자 후손들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가의 미래 안보 역군을 육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군장학기금

※ 기간 : 7월 25일 ~ 8월 24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회장 김달수) 100(2,901)

▶ 개인

• 산하업체 (주)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40)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8)
- 일반회원 (주)대창농축 오승훈 1(26)
- 일반회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26)
- 일반회원 이종섭 1(15)
- 일반회원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 이마래 1(23)
- 일반회원 우리은행 태릉지점 신현정 2(10)

▶ 정기기부

• 경기도 양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오상억 3(192)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38)
- 일반회원 이정호 1(247)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우여! 어디에 ...

• 노상식씨가 1991~93년 21사단 65연대 수송부에서 근무했던 동료들을 찾습니다.

한 달 고참이었던 조상균(91년 7월), 운전 사수였던 안진식 선배(90년 2월), 괴짜였던 변상철 선배(90년 9월), 최종현 선배, 임명근 선배, 권광일 선배, 윤하준 선배(이상 91년 1월), 후배 황호동(91년 12월), 이재선(92년 2월), 선종범씨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10-3248-7079>

• 김대구씨가 1997년부터 강원도 철원 3사단 18연대 3대대본부에서 근무한 조남호 후임을 찾습니다.

<010-8816-1448>

• 조창호씨가 1984년 입대해서 인천시 부평동 제3군수지원사령부 산하 88정비대대 668중대에서 같이 근무한 동기 김희광씨를 찾습니다.

<010-3504-1571>

• 권오국씨가 31년전 경기도 포천 6군단 산하 706특공연대 7중대 동기 신결수(영덕), 진해덕(부산), 김연길(성주)씨를 찾습니다.

<010-3522-6463>

• 최정식씨가 1970년 강원도 철원 2사단 2연대 수색중대 1소대 근무했던 전우를 찾습니다. 또 6사단 2연대 수색중대 2소대에 근무했던 하사 김수연씨를 찾습니다. 김수연씨는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1군 분교 하사관 학교 당시 학번은 288번입니다. 그리고 290번 한방부씨도 찾습니다.

<010-6215-2144>

• 1973년~1975년 서울시 영등포구 등촌동 국군수도통합병원 2호차 운전병이었던 김인태씨가 수송부에 근무한 김진식, 김윤호, 김창락, 조창현, 맹순호, 신현남, 이광호, 우관철, 김해성, 김재현, 이상윤, 이영호, 고락규, 차진병, 김찬수, 최승룡, 김기중, 정대식의 여러 전우들을 찾습니다.

<010-4359-8900>

여행정보

9월에 가볼만한 곳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9월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불갑산 관광지 일원에서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개최된다. 상사화의 일종인 석산(꽃무릇)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 영광군은 이를 활용해 매년 9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다양한 공연 및 체험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불갑산(516m)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임에도 식생이 풍부하여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참식나무 군락지가 있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야생화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상사화는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필 때는 잎이 없어 꽃과 잎이 서로 그리워한다는 의미가 있는 백합목 수선화과의 여름 꽃으로 잎이 먼저 나와 6~7월에 시든 뒤 8~9월에 꽃이 핀다.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Tel. 061-350-5269

서천 흥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

제17회 흥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가

9월1일부터 16일까지 충남 서천군 서면 흥원항 일원에서 열린다. 바다의 깨소금으로 비유되는 전어는 그 고소한 맛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을철 최고의 별미로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한다는 전어의 기막힌 맛을 찾아 흥원항으로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자.

축제는 맨손으로 전어잡기, 흥원항 추억의 놀이 체험, 비눗방울 놀이, 흥원항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흥원항 전어 짬뽕 경매, 흥원항 축제 인증샷을 올려라 등의 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

흥원항 마을 축제추진위원회 / 041-950-4525

파주 북소리 축제

대한민국 출판문화를 선도하는 파주에서 9월14일부터 3일간 북 페스티벌 '2018 파주 북소리 축제'가 열린다. 사람과 책,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파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출판문화 클러스터이자, 수천명의 출판인이 매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대한민국 출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파주북소리'는 이처럼 국제적인 출판의 메카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북 페스티벌로 2011년 가을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파주 북소리는 출판도시 내 100여 곳의 출판사와 국내 유수의 출판, 독서, 교육, 문화 기관이 힘을 합쳐 격조 있는 지식축제로 치

러지며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출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진행된다.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 031-955-0050



건강정보

소변 약해지면 「전립선 비대증」의심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의 방광하부에 존재하는 성선 기관 중 하나인 전립선의 비대로 인해 생기는 배뇨장애 증상으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점차 크기가 증가하면서 방광하부폐색증상이나 방광자극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물리적으로 비대해지면서 소변세기가 약해지거나 지연뇨, 단속뇨, 배뇨 후 잔뇨감 등이 있게 되거나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의 방광자극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전립선 비대증을 제때,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할 경우, 신장을 포함한 상부요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방광폐색 등은 신장기능 저하로 신부전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방광 혹은 신장 내 여러 결석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지속적인 방광 내 잔뇨로 요로감염, 심할 경우 요로폐렴 등으로 생명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여 발생하며 비대해진 전립선이 배뇨 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여, 방광 기능을 악화시켜 증상이 발생한다.

예방법

배뇨 증상에 대한 자가 체크 및 주기적인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만 등 대사증후군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적인 운동이 도움이 된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증상이 있을 경우 광고에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나,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 보다는,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와 검

증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검사

국제 전립선 증상점수표를 통한 증상체크, 요검사 및 요배양검사를 통한 요로감염 유무 확인과 요류 검사 및 배뇨 후 잔뇨검사, 직장수지검사나 경직장 초음파, 혈액검사를 통한 신기능검사 및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등을 통해 전립선 비대증을 확인 할 수 있다.

치료방법

약물치료 : 전립선의 조임이나 긴장을 완화시키는 교감신경차단제(알파차단제)를 사용하면 소변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즉각적 효과를 거두거나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항남성호르몬제를 투여하게 장기적으로 전립선의 물리적 비대를 억제하는 치료방법이 있다.

수술 : 약물요법을 시행하더라도 반복적 요폐, 방광 결석, 재발성요로감염이나 혈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서히 진행되는 신기능 저하증이 보일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정세 브리핑 핫 이슈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판문점선언'이 도출되었고 판문점선언의 제3조 제3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미·북간 협상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금년 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게 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 될 것임에 따라 종전선언이 무엇이고, 종전선언이 어떤 법적 함의를 가지는지, 더 나아가 종전선언은 앞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화협정은 어떤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4.27 판문점 선언 당시의 종전선언은 순전히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비핵화 목록과 맞물려 중국의 참여문제, 종전선언 후 북한에서 주한 미군 철수 등 협상의 지렛대 이용 우려, 미국의 중국 견제 및 북한의 협상 저의 의식 등의 문제로 담보상태에 빠져 있다.

정전협정은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53년 7월27일 체결되었으며, 3개월 내에 제네바에서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65년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이 되지 못하고 정전협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북 수교를 하자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 후 북한 비핵화 단계에서 미·북 수교 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목록을 제시하여 검증을 마친 뒤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용어지만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사적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를 말하며,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종전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쟁 당사국들 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한국전 정전협정

남북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 발발 이후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의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전 정전협정은 당시 UN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덕화이가 서명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대 교전 당사국이었으나 당시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을 하지 않아 종전선언 당사국의 지위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문제가 있다.

협정은 전문 5조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한글·한문으로 작성되었고 이 협정으로 인해 6.25 전쟁은 정지되어 남북은 국지적 휴전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며,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분계선과 4km 너비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다.

한국전은 65년 넘게 전쟁이 없어 사실상 종전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는데 남북한은 엄연히 전쟁 상태이며 한국전쟁은 현재진행 중인 상태이다.

다만 현재는 유엔사의 감독 하에 정전 상태, 즉 전쟁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정전상태는 남북간에 많은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재 발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호 방어를 위한 전문학적인 군비지출, 남북교류 차단, 안보불안으로 인한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불리함, 그리고 중동 수준의 전쟁위험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은 우리 경제의 악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남북은 한국 전쟁을 아예 종결시켜 1950년 6월25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적대관계에서 미수교국가 관계로 전환하여 남북평화체제의 발판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에 기반을 둔 한반도 정전체제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서 양 진영의 냉전적 대립구도 완화와 북한을 제외한 한국전쟁 주요 당사자들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 한중 수교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전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의 미작동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전체제의 구조적인 변화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정전·휴전·종전의 차이

용어의 정리를 위해 정전과 휴전, 종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전과 휴전 모두 전쟁상태라면 종전은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무의미한 소모전을 멈추거나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서로 합의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는 일'로 보통 교전 당사국들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전은 교전을 잠시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 정부 등 대표자들이 공식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서 전쟁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단계적인 정전 이후 전쟁 당사국 대표들끼리 모여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에 의하면 [정전협정→종전선언→평화협정]이라는 순서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순차적 단계로 설정되었으나 국제법상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치 않으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제1조가 법적 종전은 물론 새로운 평화의 도래를 선언하기 때문이며 더구나 정전협정은 기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곧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4조도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전협정 발효로 인한 잠정적 체제 구축만을 예정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잠정적 성격만을 가진 정전협정이 65년 넘게 존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추후 체결될 평화협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의 정치적 또는 사실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즉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판문점선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이상 종전선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특히 미국과의 공조와 조율을 통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종전선언의 주체

종전선언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는 남·북만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남·북·미, 더 나아가 남·북·미·중이 되어야 하는가? 이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우선 정전협정 서명한 당사자만 반드시 종전선언의 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 중국 측의 강력한 참여요구로 종전협정이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며 중국은 종전선언의 참여를 계기로 G2국가로서의 지역분쟁 해결사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며, 미국은 이에 반대해, 현재 종전선언이 담보상태에 와 있다.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는 실효성은 높아지나 평화협정 체

결 시 중국의 의사반영은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위해 체결된 정전협정과 법적 종전을 이룩한 평화협정을 예로 들면 1918년 11월11일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일방 당사자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프랑스 출신 페르디낭 포슈(Ferdinand Foch) 및 영국 출신 로슬린 위미스(Roslyn Wemyss)가 그리고 타방 당사자로 4명의 독일 대표들이 서명했지만 법적 종전을 완성한 평화협정인 1919년 6월28일 베르사이유 조약에는 독일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무려 28개국 이 서명했다. 이는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종전선언의 주체 더 나아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논리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의 주체로 남과 북은 물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등 어떤 경우의 수도 선택될 수 있으며 이는 종전선언의 주체 문제 역시 전략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정전선언의 효과

현재 종전선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있다. 즉 일단 종전선언을 한 이후 본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 의미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져도 여전히 한반도를 규율하는 법적 체제는 1953년 7월27일 체결되고 발효된 '정전협정'이며 종전선언은 아름다운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함의를 가져다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전협정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재 존재하는 군사분계선이 종전선언 즉시 남북 간 국경선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종전선언 전망

종전선언에 대한 미북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북한의 입장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미·북 관계 개선을 입증하는 성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의 무게감을 낮춰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입장은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 없이 종전선언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선 비핵화 목록제시와 검증 이후에 종전선언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최근 이와 관련 미·북, 남북 간의 물밑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북한이 종전선언을 조기에 하려는 걸까? 그 의도를 추정해 보면 판단에 따라 여러 사항이 있겠으나 대략 첫째, 종전선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시 북한 정권체제 안보에 큰 힘이 되고 둘째, UN사 해체 및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진전된 상황 전개에 유리하며 셋째,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종전선언이 4.27선언 당시에는 단순히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현재는 미·북간 첨예한 대립과 중국의 참여문제 등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과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과 병행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병행해야 한다. 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북한이 한때 이와 연동해 주장했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이슈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불가피하게 남북 사이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 간 종전선언과 군비통제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 및 신뢰구축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함께 부각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고려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 호국안보국)